

01 교회소식

방송매체를 통한 세계 선교

전 세계 기독교방송인들의 축제 '2013 NRB 총회 및 박람회'에 GCN 방송이 참가해 만민의 사역을 홍보했다.

02 생명의 말씀\_ 선 시리즈 6

다니엘 세 친구의 선(善)

이방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앙을 지키며 생명의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03 신앙상담

하나님을 만나는 4가지 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녀들을 가까이하고 만나 주기 원하시기에 여러 가지 축복의 통로를 열어 놓으셨다.

04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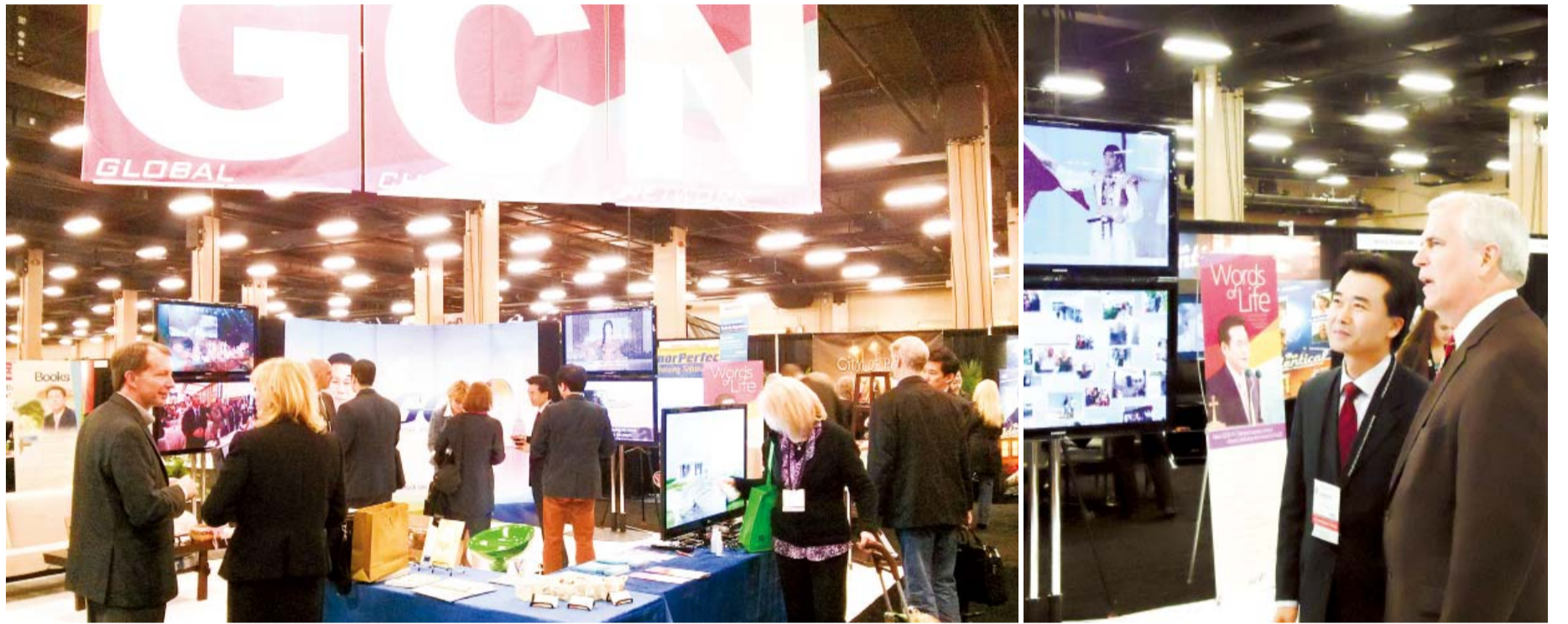
“주님 사랑 느끼며 신앙생활해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 테이프로 주님을 만난 밀양만민교회 최순선 권사와 교통사고에서 보호받은 김용철 장로 간증.

# 만민뉴스

제573호 2013년 3월 1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GCN 방송, '2013 NRB 총회 및 박람회' 참가



GCN 방송 프로그램에는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담겨 있다. 사진은 관람객들로 성황을 이뤘던 NRB 박람회 GCN 방송 부스와 그곳을 방문한 프랭크 화이트 NRB 회장(우).

전 세계 170여 개국에 하나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GCN 방송이 세계 최대 기독교방송인들의 축제 '제 70회 NRB(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총회 및 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2일부터 5일까지 미국 내슈빌 시 게이로드 오프리랜드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다.

2일 개막식에서 NRB 회장 프랭크 화이트 박사는 "미국 기독교의 영적 침체와 종교 자유 침해로 기독교방송인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역설했다. 강사 라울 리에스 목사와 토니 에반스 목사는 성결의 중요성과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강조했다.

GCN(www.gcntv.org) 방송 부스에서는 HD로 제작된 당회장 이재록 목사(GCN 방송 이사장)의 각종 설교 프로그램과 '천국'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3D 입체 영상, 만민중앙교회 창립 30주년 축하공연, 부활절 공연 등을 상영했

다. 또한 이 목사의 다국어 신앙서적과 권능의 무안단물(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변해 갖가지 치료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남)을 소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방송 관계자 및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GCN 방송 선교 위력을 실감케 했다. 이스라엘과 성경적 예언 전문가인 미국 존 맥 터너 박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는 성결이며, 마지막 때 영적 침체와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열쇠 역시 성결이다."라며 GCN 방송 부스 방문 소감을 밝혔다.

라디오 비전(AM 540) 라디오 방송 에드가 까예스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엔라세 TV를 통해 만민중앙교회 예배에 동참해 성결 복음을 듣고 있다."라고 말했다. WFHL(FM 88.1) 라디오 방송 사장 마누엘 페레이라 박사는

무안단물을 통해 나타나는 응답과 축복의 소식을 듣고 "방송을 통해 무안단물을 소개해 주고 싶다."라고 했다.

특히 NRB 지도부는 그동안 NRB 행사에 대한 GCN 방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에 대해 이사장 이재록 목사와 만민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GCN 방송은 뉴욕 라이프존 TV, 루마니아 크레도 TV, 라디오비전, 야웨 TV 등 8개 단체와 방송 협력을 체결했다. 또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사이닝 라이트 선교회 슬로보단 크레스탬스키 박사와 동유럽과 인근 지역 선교에 대해 협의했다.

출장팀은 "최신 모바일 기술을 방송선교에 접목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 장치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더 많은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 사랑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십자가 주님 은혜 되새기는 『주님의 자취』

이재록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를 책으로 엮은 『주님의 자취』는 2천여 년 전 예수님의 행적을 생생히 담고 있다. 예수님 탄생과 공생애, 십자가 고난과 부활 등에 담긴 영적 의미는 물론, 태초의 비밀과 예수님의 근본이 자세히 설명되어 독자들을 구원과 응답, 사랑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부활절을 앞두고 이재록 목사의 저서 『주님의 자취』를 청소년에 맞게 재구성한 바이블 스터디(Bible Study) 교재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주님의 자취(두 번째)'가 발간됐다. 다양한 사진과 학습문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예수님 사랑의 섭리를 깨닫게 하고 영적 믿음을 갖도록 도울 것이다.

수림 urimbooks.com    영업부 02)837-7632 Fax 02)869-1537 편집부 070)8240-5611 Fax 02)830-1844  
 교보(☎1544-1900), 영풍(☎1544-9020), 반디 앤 루니스(☎1577-4030) 등 시중 및 전국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다니엘 세 친구의 선

“...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견뎌내시겠고 ...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17~18)

식을 먹어야 했지요. 포로 신분으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우려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진미에 우상의 제물로 드러진 음식이나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긴 짐승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행위적인 율법의 준행이 중요했기에 우상의 제물이나 가증한 식물(食物)을 먹으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감독관에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대신 채식만 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락을 받았습니다. 일단 10일 동안 채식한 후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과 얼굴빛을 비교해 보라는 것이었지요. 과연 그들은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됐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계명을 좇아 자신들을 지키고자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1:17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신 대로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셨지요.

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소년들 중에서 왕을 모시는 자들로 뽑히게 됐고 왕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다니엘 1:20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도 아니고 십 배나 더 뛰어나게 높여 주셨지요.

만일 여러분이라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포로 신분으로 좋은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왕의 진미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겠는지요? 포로 신세로 이것저것 가릴 수 있는 처지도 아닌데다 왕이 지정한 음식을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상황이 안 되어서쩨 수 없다.’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철저히 싫어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의 제물과 가증한 식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마음은 세월이 흐르고 지위가 높아져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온통 이방 문화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곧 세사적이고 향락적이며 우상 숭배가 만연했지요. 그럼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곧은 중심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는 순결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포로의 신분임에도 좋은 대우를 마다하고 굳이 채식을 한 중심의 선을 본받아 진리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이 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마음

어느 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바벨론 왕은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 불에 던져 넣겠다고 엄포를 놓지요. 그러나 세 친구는 생명의 위협에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은 노하며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줄 테니 금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지요. 또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고 회유와 협박으로 세 사람의 의지를 꺾어 보려고 합니다. 이에 다니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즉 풀무 불에 던져져서 불에 타 죽는다 해도 우상 앞에 결단코 절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지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견뎌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견져 내시리이다”라고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는 왕에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잃을지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은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선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더 높게 살 수 있는 선

한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한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 불 가운데서 견져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참으로 비장한 믿음의 고백을 했지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견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능히 견져 주실 하나님을 믿으나 그리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 같은 깊은 선 가운데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온전한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만으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행할 바를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도 이만큼 자신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했음에도 오히려 시험이 왔고, 목숨을 잃을 상황이라 해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지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선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관해서 충분히 세 사람을 견져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무 불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사람이 변함없는 믿음의 증거를 선 가운데 보일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연단이 온다 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고 심은 것에 족하게 여기며 변함없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철저히 싫어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이 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과 북(이스라엘)으로 분열됩니다.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심히 노엽게 하지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앗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세 차례나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왕국을 1차 침략했을 때의 일입니다. 지도층 일부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곧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갔는데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세 친구의 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 1.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철저히 싫어하는 마음

바벨론 왕은 융화정책의 일환으로, 포로로 잡아 온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에 모든 재주를 통달하고 지식 있는 소년들을 데려다가 그 나라 학문과 방언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발탁돼 3년간 왕궁에서 왕이 내려 주는 음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대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공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일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Q**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A**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잠 8:17).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찾아 주시지만 억지로 그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 만나시는 분은 아닙니다.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 때 그 마음 안에 들어가 만나 주십니다(계 3:20). 무엇보다 가난한 심령이 될 때,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과 진리, 선과 사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네 가지 길을 살펴 보겠습니다.



## 1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날 수 있어요

성경 66권 말씀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록돼 있지요. 이러한 말씀을 알고 깨달아 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튼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이유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된 책(딤후 3:16)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찢어 찢을 수 있습니다(히 4:12).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으며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갖가지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 2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성경 말씀에 담긴 하나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집니다.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이나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을 이룰 수 있고 1대 1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의 법대로 응답해 주시니 살아 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체험할 수 있지요.

마가복음 10:46-52에 보면 소경 저지 바디매오가 간절히 찾음으

로 예수님을 만나 응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크게 소리 지르는 그에게 아무리 주변에서 “잠잠하라” 꾸짖어도 그는 더욱 부르짖지요. 자신의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나 마음의 소원대로 눈을 떠 보게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엘리야나 베드로 등 믿음의 선진들도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겔사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각오로 중심을 다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잡념이나 졸음이 틈타지 않고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렘 33:3).



## 3 마음 다해 찬양함으로 만날 수 있어요

시편 69:30-31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때를 따라 찬양을 올려드렸습

니다. 대표적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홀로 양 떼를 지킬 때나 왕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나 항상 찬양을 즐겨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사랑하셨고 늘 함께하셨지요.

찬양에는 빛의 권세도 담겨 있어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을 번뇌케 하던 악신이 물러갔습니다(삼상 16:23). 엘리사 선지자는 거문고 연주를 듣는 중 감동을 입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내렸지요(왕하 3장).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과 사랑, 능력을 마음 다해 찬양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넘치는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 4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만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구약 시대 믿음의 선진들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일천 번제를 정성껏 드림으로써 지혜의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지요. 신약 시대의 예배가 바로 이런 제사 곧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4:24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양식삼으며 드리

는 것입니다. 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 기도와 찬양, 행함과 예물로써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위로부터 내려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천국 소망과 평안, 희락이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이런 은혜를 삶 속에서 잘 유지하면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며, 매일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3**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March <2013.3.17~3.23>

www.gcntv.org

**이제부터 우리의 영혼이 말씀**

- 십계명 6-10
- 공간과 차원 2-6
- 창세기 강해 39-43
- 천국 3-7
- 나의 믿음은 [단편]
- 만민의 자랑 [단편]

**GCN TV 설교**

- 팔복 7-9 (이수진 목사)
- 욕과 영 1-2 (이수진 목사)
- 참된 지혜 (이미경 목사)
- 탁월한 선택 (정구영 목사)
- 'GCN TV 특강' 일곱교회 6-8 (빈금선 권사)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프레젠테이션 6-10
- 찬양과 경배 (3) 32-41

**해외성회 시리즈**

- 뉴욕연합대성회 1
- 페루연합대성회 종합편

**간증 프로그램**

- GCN 간증 스페셜 10-13
- 크리스천 투데이 19, 21, 23, 25, 42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



저는 첫 아이를 낳은 뒤 산후 우울증과 불면증, 심장병, 저체중, 심한 저혈압으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더욱이 불교 집안으로 시집은 후에는 어릴 적부터 다녔던 교회마저 발길을 끊었지요.

어머니는 아이들이 감기만 걸려도 보살을 불러다가 굿판을 벌이셨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리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시어머니가 절에 가거나 굿판을 벌일 때 함께하지 않았지요.

1993년 3월, 저는 중학교 시절 장난치다가 휘어진 코뼈로 인해 축농증과 비염이 생겨 수술하게 됐습니다. 그 뒤 후유증으로 숨쉬기가 힘들고 귀도 매우 아파 잠을 설치기 일쑤였지요. 설상가상으로 친정아버지가 간암 말기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신 아버지는 교회에 출석하셨고, 그해 6월 세계 교회에 나가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지요.

온갖 질병을 치료받고 가족 복음화 이뤄

그해 7월 어느 날, 저희 흠패션 상점에 단골손님인 밀양만민교회 가숙현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때마침 세계 교회에 가자고 하시며 '이재록 목사 초청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설교 테이프를 들어보라고 전해 주셨지요. 이를 계기로 저는 밀양만민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설교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7년간 질병의 고통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간증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또한 질병과 시험 환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로 인해 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건강과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은 놀라웠지요. 테이프에는 설교 후 당회장님께서 해 주시는 환자를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통회자복했습니다. 순간 성령의 불

이 임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뜨거워졌지요. 동시에 코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숨쉬기 힘들고 귀 아픈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병, 우울증, 불면증, 저혈압 등도 치료받았지요. 할렐루야!

“설교 테이프를 전해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최순선 권사 (밀양만민교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니 신앙생활이 행복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저를 몹시 못마땅해하셨지요. 하지만 그 마음이 이해가 됐기에 항상 웃는 낯으로 정성껏 섬겼습니다. 또한 상점 일뿐 아니라 집안일도 충실히 했지요. 이 행함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순으로 가족 복음화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회장님의 기도로 굽은 허리가 펴지고, 시아버지는 관절염을 치료받으셨지요.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며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고자 저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 밀양만민교회에서 미화부장, 전도부장, 지역장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의 할례, 곧 주님 마음을 닦아가는 행함은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교회 성탄트리 장식을 하기 위해 올라간 사다리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CT 촬영 결과, 코뼈가 골절돼 엇갈려 있고 코 중양은 폭 내려앉아 수술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담임 문태규 목사님께서 서울 만민중앙교회 금요일야예배에 참석차 상경하셨습니다. 그때 저를 대신해 당회장님 기도를 받으셨는데, 그 내용을 휴대폰에 녹음해서 세계 전해 주셨지요.

당회장님께서 조목조목 기도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내 코가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찌릿하더니 치료돼 부기도 신속히 가라앉았지요. 코뼈가 엇갈려 외관상 튀어나와 있던 것도 2012-2013 송구영신예배 때 당회장님의 신년 축복기도를 받고 정상이 됐습니다. 지금은 주변 사람들이 코가 예전보다 더 예

빠지고 오뎅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충성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다른 일꾼들을 보며 불편해했던 마음을 회개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주님 마음을 닦아가며 사명 감당하는 영적인 충성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 속에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셔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대형 교통사고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김용철 장로 (2대대 16-1교구)



지난 2월 18일 오전 10시 50분경, 저는 천안시 동안구 신대방 지하차도 입구 교차로에서 유탄하기 위해 신호대가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교차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보이는 대형 화물차가 갑자기 과속으로 질주해 앞차(산타페)와 충돌한 후 제 차(카렌스) 앞으로 돌진했지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서 저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만 외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형 화물차는 날아오듯 돌진해 제 차를 들이받았고, “짱!” 하는 굉음과 함께 유리 파편들

이 승용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 밖으로 나오려 했지만 운전석과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아 동승한 직원과 함께 뒷문을 통해 간신히 밖으로 빠져 나왔지요.

차는 운전석 쪽 문의 유리가 깨지고 문짝 절반이 뜯겨 나갔으며 앞바퀴는 차대가 부러진 상태로 주저앉은 상황이었습니다. 뒷문은 마치 종이로 구겨진 것 같았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저희는 병원검사 결과, 온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범사에 감사치 못했던 신앙을 돌



아보며 회개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참된 신앙을 갖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91~4, 010-5202-5547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33-3 5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채평동 118 운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산민성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9940-936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미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기(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제주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도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7487-171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김천지성전 김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경기도 이천시 총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